

독도 교육의 방향 설정을 위한 제언¹⁾

-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독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 고찰 -

김 화 경(영남대학교 교수, 독도연구소장)

《요약》

본 논고는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고등학교에서의 독도 교육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필되었다. 이러한 목적 아래 수행된 연구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신라 때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함으로써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되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독도가 울릉도에서 가시거리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산국 사람들의 생활공간이었고, 또 우산국의 영역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을 가진다는 지적을 하였다.

둘째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약 받고 돌아온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이것을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남아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그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우산도'라고 부르던 독도에 '자산도(子山島)'란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후에 자산도라는 이름을 붙인 지도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아, 독도에 대한 영토의식이 존재했었다는 상정을 하였다. 또 『숙종실록』 보궐 정오편 숙종 40년(1714년) 7월 신유(辛酉: 22일) 조의 기록, 곧 "울릉도의 동쪽에 섬들이 서로 마주 보이는데, (이것이) 왜의 경계에 접해 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독도가 명백하게 조선의 영토로 인식되었다는 것을 교과서에 기술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셋째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 정부가 칙령 제41호로, 울릉도에 울도군을 설치하고 이 군에서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한다는 것을 공포했다. 여기에서 석도라고 하는 것이 독도라는 근거로, 당시에 고종이 송도와 죽도, 우산도 이 세 섬이 울릉도를 통칭한다고 했다는 것과 실제로 이미 그 이전에 이들 세 섬이 그려진 『해동여지도』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면서 서종학의 연구를 수용하여, 독도(獨島)는 음차자(音借字)이고 석도(石島)는 훈차자(訓借字)이며, 이러한 이두식 표기는 조선 후기까지 사용되었던 첩정(牒呈)의 한 형태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정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해명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는 세 가지 사실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기술한다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사람들에게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주제어: 독도 교육, 자산도, 안용복, 이사부, 해동여지도, 석도, 고유 영토설

1) 본 논문은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중점연구소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I. 문제의 제기

2005년 시마네현(島根縣)이 2월 22일을 ‘다케시마(竹島)의 날’로 정하는 조례안을 제정하고, 뒤이어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란 것을 만들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이론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²⁾ 일본 측의 독도에 대한 도발은 조직적이면서도 공세적인 자세로 전환되었다. 다시 말해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에서 개발한 이론을 근거로 하여, 외무성은 2008년 2월에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³⁾란 팸플릿을 제작하였고, 또 이것을 9개 외국어로 번역하여 그들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그러자 문부과학성은 2008년 7월에 중학교 『사회교과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북방영토와 함께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기술할 것을 결정하였고,⁴⁾ 2009년 12월에 고등학교 『사회과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도 중학교에서의 학습 내용을 심화시키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⁵⁾ 또 2010년 3월에는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도 독도를 자기네 영토로 표시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으며, 2011년 3월에는 독도를 자기네 땅으로 기술한 중학교 사회교과목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 측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의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초등·중·고등학교 교육에 있어서 ‘독도 교육체계’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 방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르면, 중학교 독도 교육에서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우리 영토인 근거를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고등학교에서는 “독도 수호 의지를 갖추고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에 적합한 영토·역사관을 확립하는 것”을 그 목표로 정하고 있다.⁶⁾

따라서 앞으로 집필되는 한국사나 한국지리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기술되어야 마땅하다. 그렇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사 관련 교과서의 기술 내용으로 볼 때, 이와 같은 교육 목표가 쉽게 성취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교과서들에 기술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두루 알다시피 교과서에서 기술되는 내용은 명백한 사실에 입각한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독도 문제는 일본이라는 상대가 있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에 사용되는 교과서에서의 기술은 사료(史料)에 바탕을 둔 분명한 사실이어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기술이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고찰하기로 한다.

2) 竹島問題研究會(2006, p. 274)

3) 外務省アジア大洋州局ア北東ジア課(2008, pp. 1~14)

4) 文部科學省(2008, p. 49)

5) 文部科學省(2009, p. 107)

6) 교육과학기술부 홍보 자료(2011. 3. 3.)

Ⅱ. 현행 교과서에서의 독도 기술

거듭 말하지만, 교과서에서의 독도에 대한 기술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서, 한국 측에 유리한 자료들만 이용하여 그 타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배제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중·고등학교 교과서⁷⁾에서의 독도 기술 내용이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문제부터 검토하기로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의 교과서는 두 종류로 구분된다. 하나는 국가에서 그 내용의 기술과 제작을 주도하는 국정교과서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이 저술하여 제작한 것을 검정 받는 검인정 교과서가 그것이다. 우선 국정교과서로 되어 있는 『중학교 국사』의 독도에 대한 기술 내용부터 소개하기로 한다.

〔 자 료 1 〕

「독도는 울릉도에 딸린 섬으로서, 우리나라의 영토로 이어져 내려왔다. 조선 초기에 유민(流民)을 막기 위해 울릉 도민들을 본토로 옮겨 살게 하여 한때 정부의 관리가 소홀하였으나, 우리 어민들은 고기잡이를 하는 거점으로 줄곧 활용해 왔다.

특히 조선 숙종 때에 동래에 살던 안용복이 이곳을 왕래하는 일본 어부들을 쫓아 내고, 일본에 건너가서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확인시킨 일도 있었다.

그 후에도 일본 어민들이 자주 울릉도 부근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아갔다. 이에 정부는 울릉도에 관청을 두어 주민의 이주를 장려하고, 독도를 관할하였다. 그 후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일방적으로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편입시켜 버렸으나, 광복과 함께 되찾았다.」⁸⁾

여기에서는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된 섬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조정에서는 울릉도에 사람들의 거주를 금지하였지만, 어부들은 이곳을 고기잡이의 거점으로 이용했었다. 그러다가 숙종 때에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서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확인시켰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 정부의 영토 선언과 일본의 강탈, 또 광복 후에 영토 주권을 회복했다는 것을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학교 국사교과서의 기술 내용은 국정교과서인 『고등학교 국사』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7) 2010년에 검정에 통과하여 제작 중에 있는 교과서들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을 고찰의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8) 교육과학기술부(2009a, p. 240)

〔 자 료 2 〕

「울릉도와 독도는 삼국시대 이래 우리의 영토였으나 일본 어민들이 자주 이곳을 침범하여 충돌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숙종 때 안용복은 울릉도에 출몰하는 일본 어민들을 쫓아내고,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약 받고 돌아왔다. 그 후에도 일본 어민들의 침범이 계속되자 19세기 말에 조선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울릉도 경영에 나서 주민의 이주를 장려하였고,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여 관리를 파견하고 독도까지 관할하게 하였다.」⁹⁾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하나의 세트로 보면서, 삼국시대 이래 우리의 영토였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안용복이 일본으로부터 이들 두 섬이 조선의 영토였음을 확약 받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보았으며,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여 관리들이 독도까지 관할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 강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아, 중학교 국사교과서에서의 기술보다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한편 이처럼 국정이 아니라 검인정으로 출판된 교과서에서도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도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 자 료 3 〕

『삼국사기』에 따르면 6세기 초 신라 지증왕 때 이사부가 현재의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 있던 우산국을 점령하여 신라에 복속시켰다. 『고려사』에는 우산국 사람들이 고려에 토산물을 바친 기록이 나온다. 『세종실록지리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종 때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이 책에 덧붙여 있는 <팔도총도>에서도 독도를 확인할 수 있다.

17세기 말 조선과 일본 사이에 독도에서 분쟁이 일어나자, 안용복은 일본에 두 차례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임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일본 막부는 1699년에는 다케시마(竹島: 당시 일본에서 울릉도를 일컫던 말)와 부속 도서를 조선 영토로 인정하는 문서를 조선 조정에 넘겼다. 조선의 문헌뿐만 아니라 일본의 여러 옛 지도들에서도 독도를 조선 땅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1876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부속임을 인정하였으며, 대한제국 정부도 1900년 10월 27일 관보를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울진군에서 분리한 뒤 울도군으로 독립 시켰음을 내외에 고시하고 있다.¹⁰⁾

이것은 김한중 등이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이곳

9) 교육과학기술부(2009b, p. 104)

10) 김한중 등(2009, p. 89)

에서의 기술도 앞에서 고찰한 국정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지만 독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나 지리적 기록을 바탕으로 한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하여 안용복이 두 번에 걸쳐 일본에 건너갔었다는 것과 그때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확인하였다는 것도 강조하였다. 또 안용복의 이러한 일련의 활동이 막부로 하여금 울릉도와 그 부속 도서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받게 하는 방향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1876년 강화도 조약에서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다는 것과, 대한제국 정부에서 1900년 울도군을 설치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러한 기술은 국정 교과서보다 한층 더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나름의 의의를 인정해도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술이 검증을 거쳐 사실로 인정받은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비해, 김광남 등이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에서는 일본의 독도 강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그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있어 주목을 끈다.

[자 료 4]

「한편 일제는 러·일 전쟁 도발 후에 군사적으로 한국을 점령하고, 시마네현(縣)의 고시(告示)에 의하여 독도를 일방적으로 그들의 영토로 편입하였다(1905. 2.). 이 사실은 1년 뒤 시마네현의 사무관이 독도 조사를 마치고 울릉도 군수에게 통고함으로써 한국에 처음으로 알려졌다(1906. 3.). 울릉도 군수의 보고에 접한 한국 정부는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미 을사조약에 의하여 일본에게 외교권을 빼앗겨 항의할 길이 없었다.

독도는 울릉도에 소속된 섬으로서 6세기에 신라가 우산국을 정벌한 이래로 울릉도와 함께 엄연한 우리나라의 영토였다. 각종의 문헌과 지도에 의하면, 일본의 독도 병합 이전에는 한국은 물론 러시아와 일본도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해 왔다. 일본의 독도 병합은 국제적으로 영토 편입을 공시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탈취해간 불법적인 것이었다.」¹¹⁾

이 교과서에서는 일제의 독도 점취(占取)가 대한제국 정부의 외교권을 박탈한 다음에 이루어진 불법적인 조치였음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리고 독도가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6세기부터 엄연한 한국의 영토였음을 강조하였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제까지 국정 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들의 독도에 대한 기술 내용을 별견하였다. 이들 가운데서 [자료 1] 『중학교 국사』에서는 일본이 “일본은 러·일 전쟁 중에 일방적으로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편입시켰다.”는 것을, 또 [자료 3] 김한중 등의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세종실록지리지』 및 『신증동국여지승람』과 그에 첨부된 <팔도총도>라는 지리적 지식을

11) 김광남 등(2008, p. 77)

바탕으로 한 한국 영토론을, 그리고 [자료 4] 김광남 등의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에서는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영토 편입이 불법적인 처사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국정인 『고등학교 국사』에서는 “울릉도에 군을 설치하여 관리를 파견하고 독도까지 관할하게 하였다.”라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란 사실만을 강조하였을 뿐, 일본과의 사이에 영유권 문제가 왜 제기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특징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 국정·검인정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기술되고 있는 독도에 대한 기술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 독도는 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의 영토였다.
- (2) 숙종 때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란 사실을 확약 받고 돌아왔다.
- (3)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27일 관보를 통해 독도를 울도군의 관할로 한다는 칙령을 공포하였다.
- (4) 일본의 독도 병합은 불법적인 탈취였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것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서 독도 교육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4)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 여부를 별도로 고찰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에 전자의 세 가지 명제들은 보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사실성 여부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Ⅲ. 기존 교과서 기술의 문제점과 그 보완 방안

1. 고유 영토설의 문제점 극복을 위한 제언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독도는 삼국시대 이래에 우리나라의 영토였다.”고 하는 명제이다. 이것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고유 영토설과도 관련을 가지는 것이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는 까닭은 이사부(異斯夫)의 우산국 정벌에 관한 기록에는 독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마립간 13년(AD 512년) 6월조에 실려 있는, 이사부 관련 기사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 자 료 5 〕

「우산국이 귀복(歸服)하여 해마다 토산물로써 세공을 바치기로 하였다. 우산국은 명주(溟州: 강릉)의 정 동쪽 바다 가운데 있는 섬으로, 혹은 울릉도라고도 한다. 땅 둘레가 100리인데, 험한 것을 믿고 항복하지 아니했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어, 우산인들이 미련하고도 사나우므로, 위력으로 복종시키기는 어렵고 계교로써 복속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나무로 허수아비 사자를 많이 만들어 전선에 나누어 싣고, 그 나라 해안에 다다라 거짓말로 고해 말하기를,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맹수들을 풀어놓아 짓밟아 죽이겠다.”라고 하였다. 그 나라 사람들이 무서워하여 곧 항복하였다.»¹²⁾

이와 비슷한 내용의 기록은 『삼국사기』 권 44 열전 제4 이사부 조¹³⁾와 『삼국유사』 권 1 기이편 지철로왕 조에도 실려 있다. 하지만 후자에서의 기록은 『삼국사기』의 그것과는 얼마간의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아슬라주(지금의 명주이다.)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순풍이면 이들 정도 되는 곳에 우릉도(于陵島: 지금은 우릉(羽陵)이라고 쓴다.)란 섬이 있고, 둘레가 2만 6천 7백 3십 보이다.”¹⁴⁾라고 하여 ‘우산국’이 아니라, ‘우릉도’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그리고 이사부가 아니라, 이찬 박이종이 왕의 명을 받들어 이 섬사람들의 항복을 받아낸 것으로 되어 있다는 차이도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우산국이나 우릉도가 신라에 복속되었다고 하는 공통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신라의 우산국(우릉도) 정벌로 인해서 독도마저 신라에 복속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일본의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에서, 다음과 같이 한국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측은 고문헌 『삼국사기』(1145년),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의 기술을 근거로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두 개의 섬을 예로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우산도’가 바로 오늘날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는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에 신라에 귀속했다는 기술은 있습니다만, 우산도에 관한 기술은 없습니다. 또한 조선의 다른 고문헌 중에 나오는 ‘우산도’의 기술을 보면, 그 섬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큰 대나무를 생산한다는 등 다케시마의 실상과 맞지 않는 바가 있으며, 오히려 울릉도를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¹⁵⁾

12) 이병도 역(1983, p. 69)

13) 이병도 역(1983, pp. 317~318)

14) 이민수 역(1983, p. 85)

15) 外務省アジア大洋州局ア北東アジア課(2008, pp. 3~4)

일본 외무성의 이와 같은 주장은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후대에 우산도라고 불렀던 독도가 이 우산국에는 포함되지 않았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하여,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 섬이 아니라고 하는 일본 측의 견해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기록으로는 남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울릉도에서 독도가 가시거리(可視距離) 내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근대의 국경 개념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시야에 들어오는 섬은 거기에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공간, 곧 삶의 터전으로 인정하고 있었다.¹⁶⁾

이런 의미에서 숙종 때에 장한상(張漢相)이 저술한 『울릉도사적』의 아래와 같은 기록은 독도가 울릉도의 속도였고, 또 그 곳 사람들의 어장(漁場)이었음을 증명하는 좋은 증거가 아닐 수 없다.

[자 료 6]

「섬 주위를 이틀 만에 다 돌아보니, 그 이수(里數)는 150-160리에 불과하고, 남쪽 해안에는 황죽(篋竹)밭이 있었다. 그리고 동쪽으로 5리쯤 되는 곳에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그리 높고 크지는 않으나 해장죽(海長竹)이 한쪽에 무더기로 자라고 있었다. 비가 개이고 구름 걷힌 날, 산에 들어가 중봉(中峰)에 올라보니, 남쪽과 북쪽의 두 봉우리가 우뚝하게 마주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삼봉이다. 서쪽으로는 구불구불한 대관령의 모습이 보이고, 동쪽으로 바다를 바라보니 동남쪽에 섬 하나가 희미하게 있는데 크기는 울릉도의 3분의 1이 안 되고 거리는 300여 리에 지나지 않았다.」¹⁷⁾

이것은 ‘울릉도 쟁계’, 곧 울릉도의 영유권과 어업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일본 막부와의 분쟁¹⁸⁾이 계속되고 있던 1694년(숙종 20년)에 삼척첨사로 임명되어 울릉도를 수토(搜討)했던 장한상이 직접 견문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이 기록의 밑줄을 그은 곳에서 말하고 있는 섬은 독도가 분명하다. 비록 그 크기가 울릉도의 3분의 1이었다고 해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거리가 300여 리라고 한 것은 상당히 정확한 목측(目測)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독도가 울릉도의 동남쪽 87.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거리로 볼 때 이 섬은 독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울릉도를 수토한 장한상이 이처럼 직접 독도를 보았다는 것은 이곳이 울릉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¹⁹⁾

그런데 가시거리 내에 존재하는 섬을 자국의 영토로 인식한 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16) 김화경(2011, p. 59)

17) 張漢相: 『鬱陵島事蹟』

18) ‘울릉도 쟁계’란 이맹휴(李孟休)가 지은 『춘관지(春官志)』에서 붙인 명칭으로, 일본 요나고의 오야 집안 어부들이 박어둔과 안용복을 납치해 간 것이 그 발단이 되었다.

법제처 역(1976, pp. 269~282)

19) 김화경(2011, pp. 61~62)

마찬가지였다. 일본의 이와 같은 인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이토 후센(齋藤豊宣)이 쓴 『인슈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의 아래와 같은 서술이다.

〔 자 료 7 〕

「(오키도(隱岐嶋))에서) 술해 간(戌亥間, 서북 방향을 가리킴: 인용자 주)으로 가기를 이튿날 하룻밤에 마쓰시마(松島=독도)가 있고, 또 하루 정도에 다케시마(竹島=울릉도)가 있다. 세간에서 말하기를 이소다케시마(磯竹島=울릉도)라고 하는데, 대나무와, 물고기, 해록(海鹿)이 많다. 이 두 섬은 사람이 없는 땅으로, (이소다케시마에서) 고려를 보는 것이 마치 운슈(雲州=이즈모(出雲))에서 오키(隱岐)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러한즉 일본 서북쪽의 땅은 이 주로써 경계를 삼는다.」²⁰⁾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주(此州)’에 대하여 제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신용하(愼鏞廈)는 이것을 ‘인슈(隱州)’ 곧 오키도(隱岐島)로 보았는데 반해,²¹⁾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는 ‘다케시마’ 곧 울릉도로 보았다.²²⁾

그러나 이 문장은 “울릉도에서 조선을 바라보는 것이 이즈모(出雲)에서 오키(隱岐)를 바라보는 것과 같다. 그런즉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이 주로써 한다.”라고 해석해야 마땅하다.²³⁾ 그 까닭은 이 글을 쓴 사이토가 울릉도에 온 적이 없었으므로, 당연히 근칭(近稱)에 해당되는 ‘이 주’는 오키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이처럼 문맥에 맞게 해석한다면, 일본에서는 보이는 곳까지를 일본 땅의 경계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한국의 경우에 원용한다면 사이토가 얻어 들은 것을 적은, 울릉도(다케시마)에서 고려를 볼 수 있다고 한 기록은 울릉도까지를 조선의 영토로 간주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울릉도에서 독도(마쓰시마)가 보인다는 사실은 후자가 전자에 부속되는 섬이었음을 증명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²⁴⁾

그런데 이와 같은 논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는 섬까지의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 그것의 소유권을 결정하던 관습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관

20) “戌亥間 行二日一夜有松島 又一日程有竹島. 俗言磯竹島 多竹漁海鹿. 此二島 無人之地 見高麗 如自雲州望隱岐 然則日本乾地 以此州爲限矣.”

市島謙吉 編(1906, p. 450)

21) 신용하(1996, pp. 146~147)

22) 下條正男(1996, p. 70)

23) 일본의 이케우치 사토시도 마쓰시마(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판도 바깥의 존재로 보았다.

池內敏(2007, p. 145)

24) 이것은 한국의 경우에도 자료 10에 제시하는 사실, 곧 울릉도에서 마주 보이는 섬이 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한 것과도 일치한다. 그러므로 한·일 양국이 보이는 곳까지를 자기 나라 영토로 보았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다.

습법은 울릉도 쟁계 때에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다.²⁵⁾ 이러한 관습법이 그 후에도 계속 존속되었다는 것은 기타자와 세이세이(北澤正誠)이 일본 외무성의 지시를 받아 저술한 『다케시마 고증(竹島考證)』의 아래와 같은 기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다케시마(울릉도)는 도쿠가와(德川) 씨가 다스리던 때에 갈등이 생겨 조선에 넘겨주게 되었으나, 마쯔시마(독도)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니 일본 땅임이 분명하다. 만약 조선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느 쪽이 더 가깝고 어느 쪽에서 더 먼지에 대해 논하여 일본의 섬임을 증명해야 한다.”²⁶⁾

이것은 기타자와가 자기의 견해를 기술한 것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섬의 소유를 결정하는 관습이 그때까지도 존재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관습에 따르는 경우에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보이지만, 일본의 오키도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가시거리 내에 존재하는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명확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로 인해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되었다고 기술함으로써 일본으로부터 논박을 당하기보다는, 울릉도에서 가시거리 내에 위치한 독도는 우산국의 땅이었기 때문에 신라시대에 이사부의 정벌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되었다고 기술하는 것이 더 설득력을 가지지 않을까 한다.

2. 안용복의 활동에 대한 기술 문제

다음으로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란 사실을 확약 받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가 하는 문제이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해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한국 측이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근거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자 료 8]

『비변사에서 안용복 등을 추문하였는데, 안용복이 말하기를, “저는 본래 동래에 사는데, 어머니를 보러 울산에 갔다가 마침 승려 뇌헌(雷憲) 등을 만나서 근년에 울릉도에 왕래한 일을 자세히 말하고, 또 그 섬에 해산물이 많다는 것을 말하였더니, 뇌헌 등이 이(利)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같이 배를 타고 영해에 사는 뱃사공 유일부(劉日夫) 등과 함께 떠나 그

25) 김화경(2009, pp. 5~45)

26) 정영미 역(2006, pp. 342~343)

그러나 독도까지의 거리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일본 측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대두되었던 정한론(征韓論)을 염두에 둔 허구였다고 할 수 있다.

김화경(2009, p. 36)

섬에 이르렀는데, 주산(主山)인 삼봉(三峯)은 삼각산보다 높았고, 남에서 북까지는 이틀길이고 동에서 서까지도 그러했습니다. 산에는 잡목과 매, 까마귀, 고양이도 많았고, 왜의 선박도 많이 와서 정박하고 있었으므로 뱃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말하기를, ‘울릉도는 본디 우리 지경인데, 왜인이 어찌하여 감히 지경을 넘어 침범하였는가? 너희들을 모두 포박 하여야 하겠다.’라고 하고, 이어서 뱃머리에 나아가 큰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이 말하기를, ‘우리들은 본디 송도(松島)에 사는데 우연히 고기잡이 하러 나왔기에, 이제 본소(本所)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므로, ‘송도는 자산도(子山島)로 그것도 우리나라의 땅인데 너희들이 감히 거기에 사는가?’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이튿날 새벽에 배를 몰아 자산도에 갔는데, 왜인들이 막 가마술을 벌여 놓고 고기 기름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막대기로 쳐서 깨뜨리고 큰 소리로 꾸짖었더니, 왜인들이 거두어 배에 싣고서 돛을 올리고 돌아가므로, 제가 곧 배를 타고 뒤쫓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을 만나 표류하여 옥기도(玉岐島)에 이르렀는데, 도주(島主)가 들어온 까닭을 묻기에, 제가 말하기를, ① ‘근년에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울릉과 자산 등의 섬을 조선의 지경으로 정하고, 관백(關白)의 서계(書契)까지 있는데, 이 나라에서는 정해진 법도가 없어서 이제 또 우리 지경을 침범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라고 하자, 마땅히 호키주(伯耆州)에 전보하겠다고 하였으나,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분완(憤惋)을 금하지 못하여 배를 타고 곧장 백기주로 가서 울릉 자산 양도 감세(鬱陵子山兩島監稅)라 가칭하고 장차 사람을 시켜 본도에 통고 하려 하는데, 그 섬에서 사람과 말을 보내어 맞이하므로, 저는 푸른 철릭을 입고 검은 포립을 쓰고 가족신을 신고 교자를 타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말을 타고서 그 고을로 갔습니다. 저는 도주와 청(廳) 위에 마주 앉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중계(中階)에 앉았는데, 도주가 묻기를, ‘어찌하여 들어왔는가?’라고 하므로, 답하기를 ② ‘전일 두 섬의 일로 서계를 받아 낸 것이 명백할 뿐만이 아닌데,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서계를 빼앗고는 중간에서 위조하여 두세 번 차왜를 보내고 법을 어겨 함부로 침범 하였으니, 내가 장차 관백에게 상소하여 죄상을 두루 말하러 한다.’라고 하였더니, 도주가 허락했습니다. 드디어 이인성(李仁成)으로 하여금 소(疏)를 지어 바치게 하자, 도주의 아버지가 백기주에 간청하여 오기를, ‘이 소를 올리면 내 아들이 반드시 중한 죄를 얻어 죽게 될 것이니 바치지 말기 바란다.’라고 하였으므로, 관백에게 품정(稟定)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전일 지경을 침범한 왜인 15인을 적발하여 처벌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주가 저에게 말하기를, ③ ‘두 섬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으니, 뒤에 혹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거나 혹 함부로 침범하거든, 모두 국서를 만들어 역관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어서 양식을 주고 차왜를 정하여 호송하려 하였으나, 제가 데려가는 것은 폐단이 있다고 사양했습니다.”라고 하였고, 뇌헌 등 여러 사람의 공사(供辭)도 대략 같았다. 비변사에서 아뢰기를, “우선 뒷날 등대(登對)할 때를 기다려 품처(稟處)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윤허하였다.」²⁷⁾

이것은 『숙종실록』 숙종 22년 9월 무인(戊寅: 25일) 조의 실려 있는 기록이다. 이러한 이 기사에서 밑줄을 그은 ①과 ③의 안용복 진술을 근거로 하여, 한국의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는 그가 일본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땅이란 사실을 확약 받은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안용복은 ①에서 “근년에 내가 이곳에 들어와서 울릉과 자산 등의 섬을 조선의 지경으로 정하고, 관백의 서계까지 있는데”라고 하였다. 그가 여기에서 ‘근년(近年)’이라고 한 것은 1693년 요나고의 오야 집안 어부들에게 납치되었던 사건을 가리킨다. 그때에 그는 관백, 곧 에도(江戸)의 쇼군(將軍)으로부터 “울릉과 자산(독도) 등의 섬이 조선의 지경”이라는 서계를 받았으나, ②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을 대마도주에게 빼앗겼다는 것이다. 또 ③에서는 호키주의 태수가 “두 섬은 이미 너희 나라에 속하였으니, 뒤에 혹 다시 침범하여 넘어가는 자가 있거나 도주가 혹 함부로 침범하거든, 모두 국서를 만들어 역관을 정하여 들여보내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은 현재까지 발견이 되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일본의 외무성은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막부가 울릉도 도항 금지를 결정한 후, 안용복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후, 다시 조선에 송환된 안용복은 울릉도 도항 금지를 어긴 자로서 조선 관리의 심문을 받았는데, 이때의 안용복의 진술이 현재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의 한 근거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측 문헌에 따르면, 안용복은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 및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서계 즉 문서를 에도막부로부터 받았으나, 대마도의 번주가 이 문서를 빼앗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이 1693년과 1696년에 일본에 왔다는 등의 기록은 있습니다만, 한국 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서계를 안용복에게 주었다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더욱이 한국 측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6년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에 다수 일본인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용복이 일본에 온 것은 막부가 울릉도 도항 금지를 결정한 후의 일로써, 당시 오야, 무라카와 양 집안은 모두 이 섬에 도항하지 않았습니다.

안용복에 관한 한국 측 문헌의 기술은 안용복이 국금을 어기고 나라 밖에 도항하여, 그 귀국 후에 심문을 받았을 때의 진술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의 진술은 상기 내용 뿐만 아니라, 사실에 맞지 않는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한국 측에 의해 다케시마 영유권의 한 근거로 인용되어 왔습니다.”²⁸⁾

27) 『肅宗實錄』 肅宗 22年 9月 戊寅條.

28) 外務省アジア大洋州局ア北東アジア課(2008, p. 7)

이러한 일본 외무성의 견해를 보면, 그들이 안용복의 진술을 부정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외무성의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에는 일본 학자들의 왜곡된 연구, 곧 그들의 독도 강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료를 의도적으로 일본에 유리하게 해석한 연구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왜곡된 연구를 한 사람들로서는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²⁹⁾와 다가와 고조(田川孝三)³⁰⁾,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시모조는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 최종보고서의 머리말에 해당되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로부터 2년’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안용복이 오키도(隱岐島)에 도항한 것은 1696년 5월 20일. 그렇지만 대마번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에도 막부가 울릉도에의 도해 금지를 명한 것은 4개월 정도 전인 1월 28일. 돗토리번 요나고의 오야·무라카와 두 집안에 주어졌던 도해 면허가 막부에 반환된 것이 2월 9일이었다. 한국의 역사 교과서가 가르치고 있는 것과 같은, 안용복이 울릉도에서 ‘일본의 어부들과 조우하여, 일본에 건너와 우리 영토인 것을 확인하는 일’은 없었던 것이다. 안용복은, 에도 막부의 지시를 받은 돗토리번에 의해 8월 6일, 가로나다(加露灘)로부터 추방되었다. 막부의 도해 금지 조치와 안용복의 도일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이다.」³¹⁾

시모조의 이런 견해는 사건의 앞뒤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부정을 위한 부정에 불과한 것이다. 왜냐하면 1696년 1월 28일에 에도 막부에서 내려진 울릉도에의 도해 금지령이 곧바로 오야·무라카와 두 집안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³²⁾ 또 실제로 그 사실이 조선에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1697년 2월이었다. 그런데도 안용복 진술의 허구성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모조는 시간적인 순서만을 열거하였다. 이와 같은 태도는 역설적으로 안용복이 그만큼 독도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는 인물임을 증명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일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안용복이 일본의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란 사실을 확약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고 하여 일본 외무성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어떤 형태로든 독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일본의 자료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다. 바로 이런 자료의 하나가 2005년 5월에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도의 오치군(隠地郡) 아마정(海士町) 무라카미 조쿠로(村上助九郎)의 집에서 발견된 『겐로쿠 9년(병자) 조선 배 착안 한 권의 각서』이다.

29) 川上健三(1966, p. 61)

30) 田川孝三(1989, p. 24)

31) 下條正男(2007, p. 6)

32) 三田清人(2007, p. 42)

〔 자 료 9 〕

「안용복은 다케시마(竹島)를 대나무의 섬이라고 하였다. 조선국 강원도 동래부 안에 울릉도라는 섬이 있다. 이것을 다케시마라고 하는 데, 팔도의 지도(八道之圖)에 적힌 것을 가지고 왔다.

마쓰시마(松島)는 오른쪽 같은 도(右同道: 강원도)³³⁾ 안에 자산(子山)이라고 하는 섬이 있다. 이것을 마쓰시마라고 하는 데, 이것도 팔도의 지도에 적혀 있다.³⁴⁾

이것을 보면, 안용복은 오키도 대관(代官)의 심문 과정에 일본에서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라고 부르고 있던 울릉도와 자산도가 그려진 지도를 지참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그가 호키주(伯耆州)에 가서 송사(訟事)를 벌이려고 했던 것이 울릉도와 자산도(독도)의 소속에 관한 것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환언하면 그가 왜 이런 지도를 가지고 갔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의 도일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안용복이 그때까지 우산도라고 부르던 독도에 '자산도(子山島)'란 이름을 붙였는데, 이 자산도란 명칭 위에 일본의 가다카나로 '소우산(ソウサン)'이라고 명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소우산'이란 명칭은 작은 우산도란 뜻으로 사용되었을 수도 있지만, 울릉도를 모도(母島) 곧 어머니 섬이라고 한다면 독도를 '아들 섬'에 해당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³⁵⁾



〔지도 1〕『천하도』의 강원도 지도

33) 세로로 쓴 문장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음을 밝혀둔다.

34) “安龍福申候ハ竹島ヲ竹ノ島ト申候。朝鮮國江原道東萊府ノ内ニ鬱陵島ト申島御座候。是ヲ竹ノ島ト申由申候。則八道ノ圖ニ記之所持仕候。松島ハ右同道之内子山(ソウサン)ト申島御座候。是ヲ松島ト申由。是も八道之圖ニ記申候。” 樋野俊晴 脱草(2005, pp. 254~255)

35) 송병기(1991, p. 49)

그런데 그가 독도에 자산도란 명칭을 붙인 지도를 지참하고 일본에 다녀온 다음에, 이러한 지도들이 간행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당시에 자산도란 이름이 그만큼 알려졌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지도 하나를 위에서 소개하였다. 아래의 [지도 1]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에서 고서관(古書館)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원(金正元)이 제공한 것인데, 이와 같은 계통의 지도로는 이찬(李燦)이 편저한 『한국의 고지도』에 들어있는 『여지도(輿地圖)』 첩의 강원도 지도³⁶⁾가 있다.

이와 같은 지도들이 당시에 방각되었다는 것은 ‘자산도’란 명칭이 그만큼 일반에게 알려져 있었음을 나타낸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섬이 조선의 영토란 인식이 확실해졌다는 것을 『숙종실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 료 10]

『강원도 어사 조석명(趙錫命)이 영동 지방의 해방(海防)의 허술한 상황을 논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포구 사람들의 말을 상세히 듣건대, ‘평해·울진은 울릉도와 거리가 가장 가까워서 뱃길에 조금도 장애가 없고, 울릉도 동쪽에는 섬이 서로 마주 보이는데 왜의 경계(倭境)에 접해 있다.’고 하였습니다.”³⁷⁾

이 기사는 『숙종실록』 보궐 정오편(補闕正誤編) 숙종 40년(1714년) 7월 신유(辛酉: 22일) 조에 실려 있는 것으로,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해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러한 이 자료의 밑줄 그은 문장을 통해서 당시에 이미 울릉도 동쪽에 마주 보이는 섬이 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는 인식이 민간들 사이에는 퍼져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이, 조정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이유는 포구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조석명이 보고하였고, 또 그러한 보고를 사관(士官)들이 실록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와 같은 일련의 자료들을 중심으로 볼 때,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교과서에 기술하여 일본 측으로 하여금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들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음을 강조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곧 “조선 숙종 때에 안용복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음을 주장하였다. 특히 그는 당시에 우산도라고 부르고 있던 독도에 ‘자산도’란 이름을 붙였는데, 그 후에 이 계통의 지도들이 방각되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독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울릉도에서 보이는 독도까지가 조선의 영토라는 인식이 민간은 물론 조정에서도 인정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36) 이찬은 이 지도를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았다.

이찬(1991, p. 160), 『輿地圖』첩의 강원도지도.

37) 『肅宗實錄』補闕正誤編. 肅宗 40年(1714年) 7月 辛酉(22日)條.

수 있다.”라는 내용을 기술하여, 명확한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 독도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3. 울도군 설치와 독도의 관할 문제

다음으로 대한제국의 칙령 제41호로 공포한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도감(島監)을 군수로 개정한 건」에, 과연 독도가 포함되었느냐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칙령의 내용부터 일별할 필요가 있다.

[자 료 11]

「제1조 울릉도를 울도(鬱島)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할 것.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台霞洞)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石島)를 관할할 것.」³⁸⁾

이런 칙령을 공포하여 울릉도에 ‘울도군’을 설치한 것은 일본인들의 자원 수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00년 일본인들이 어느 정도 울릉도에 거주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당시 울릉도의 시찰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우용정(禹用鼎)의 『울도기(鬱島記)』 후록(後錄)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일본인은 각 마을에 흩어져 사는 자를 합하여 초막 57칸이고 인구는 남녀 합해서 144명”이라고 하면서, “만약 또 (일본인들이) 몇 년을 거주한다면 산에 가득한 수목이 반드시 벌겍게 되고 말 것이다.”³⁹⁾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 보고는 그 당시에 울릉도에서 일본인들이 자행하고 있던 자원 탈취의 한 단면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인들의 이러한 자원 수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울릉도에 울도군을 설치하는, 행정 개편을 단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에 울도군이 관할하기로 한 것이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였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석도’가 과연 독도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사사키시게루(佐々木茂)는 석도가 울릉도 옆에 있는 관음도(觀音島)일 것이라는 추정을 하였다.⁴⁰⁾ 하지만 이 섬이 관음도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1822년 이규원(李奎遠)이 고종에게 그려 바쳤던 「울릉외도(鬱陵外圖)」에서는 ‘도항(島項)’이라고 불렀고,⁴¹⁾ 1910년에 출판된 『한국수산지』 2권에서는 ‘서항도(鼠項島)’

38) 송병기 편(2004, pp. 193~195)

39) 신용하 편저(2000, p. 88)

40) 佐々木茂(2007, p. 59)

41) 이상태(2007, p. 97)

라고 불렀던 섬⁴²⁾을 왜 ‘석도’라고 명명했었는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고증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일본의 외무성은 이러한 잘못된 연구를 근거로 하여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다.

“조선에서는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의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함과 동시에 도감을 군수로 한다는 것을 공포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칙령 가운데, 울릉군(울도군의 잘못임: 인용자 주)이 관할하는 지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석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죽도는 울릉도 근방에 있는 ‘죽서(竹嶼)’라는 작은 섬이지만, ‘석도’는 바로 지금의 ‘독도’를 가리킨다고 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방언으로 ‘돌(石)’을 ‘독’으로 발음하며, 이를 발음대로 한자로 고치면 ‘독도(獨島)’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라면, 왜 칙령에서 ‘독도’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또 한국 측이 다케시마의 옛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우산도’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나아가 ‘독도’라는 호칭은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만일 이런 의문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이 칙령의 공포를 전후하여 조선이 다케 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이 없어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권은 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⁴³⁾

그러나 이러한 지적은 한국 측의 자료들을 전혀 참작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칙령 제41호가 1900년 10월 27일에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기인된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시에는 이 칙령이 공포되기 이전에도 동해에 울릉도를 비롯한 세 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런 인식은 고종이 울릉도에 일본인들의 자원 수탈 현황과 설읍(設邑)의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파견하기로 한 울릉도 검찰사(檢察使) 이규원(李奎遠)과의 면담에서 오고간 대화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자 료 12]

「초 7일에 검찰사 이규원을 불러보았다. 먼 길을 떠나게 된 사신이 임금에게 하직의 인사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임금이) 하교하기를, “울릉도에는 근래에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무 때나 왕래하면서 제멋대로 편리를 도모하는 폐단이 있다고 한다. 또 ① 송죽도와 우산도는 울릉도의 곁에 있는데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또 무슨 물건이 나는지 자세히 알 수 없다. 이번에 그대가 가게 된 것은 특별히 가려 차임(差任)한 것이니 각별히 검찰하여라.

42) 농상공부 수산국 편(1910, p. 707)

43) 外務省アジア大洋州局ア北東ジア課(2008, p. 9)

그리고 앞으로 읍(邑)을 세울 생각이니, 반드시 지도와 함께 별단(別單)에 자세히 적어 보고하라.”라고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② 우산도는 바로 울릉도이며 우산이란 바로 옛날 우산국의 국도 이름입니다. 송죽도는 하나의 작은 섬인데 울릉도와 떨어진 거리는 30리쯤 됩니다. 여기서 나는 물건은 단향과 간죽이라고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하교하기를, “③ 우산도라고도 하고 송죽도라고도 하는데 다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다. 그리고 또 혹은 송도·죽도라고도 하는데 우산도와 함께 이 세 섬을 통칭 울릉도라고 하였다. 그 형세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아라. 울릉도는 본래 삼척 영장과 월송 만호가 둘러가면서 수검하던 곳인데, 거의 다 소홀히 함을 면하지 못하였다. 그저 외부만 살펴보고 돌아왔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었다. 그대는 반드시 상세히 살펴보라.”라고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삼가 깊이 들어가서 검찰 하겠습니다. ④ 어떤 사람들은 송도와 죽도는 울릉도의 동쪽에 있다고 하지만 이것 은 송죽도 외에 따로 송도와 죽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하교하기를, “혹시 그전에 가서 수검한 사람의 말을 들은 것이 있는가?”라고 하니, 이규원이 아뢰기를, “그전에 가서 수검한 사람은 만나지 못하였으나, 대체 적인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라고 하였다.」⁴⁴⁾

이와 같은 고종과 이규원의 대화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송죽도에 대한 두 사람의 인식의 차이이다. 우선 고종은 ① “송죽도와 우산도는 울릉도의 곁에 있다.”고 하였고, 또 ③에서는 “우산도라고도 하고 송죽도라고도 하는데 다 『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다. 그리고 또 혹은 송도·죽도라고도 하는데 우산도와 함께 이 세 섬을 통칭 울릉도라고 하였다.”고 하여 약간의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것 같은 표현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송도와 죽도, 우산도 울릉도의 관계가 확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혼란이 있기는 하지만, ③에서 고종이 말한 송도와 죽도, 우산도 이들 세 섬을 통칭하여 울릉도라고 한다는 것은 이규원이 검찰을 하러 가는 울릉도에 세 개의 섬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반해 이규원은 ②에서 우산도는 울릉도이고 송죽도는 울릉도에서 30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섬이라고 하였다가, 또 ④에서는 혹자가 송도와 죽도는 울릉도의 동쪽에 있다고 하지만 송죽도 외에 따로 송도와 죽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들의 대화에서 고종은 송도와 죽도 우산도를 별개의 섬으로 보려고 했는데 반해, 이규원은 송죽도를 하나의 섬으로 보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그 당시 고종의 이와 같은 인식은 일본인들이 ‘송도’라고 부르던 울릉도와 그 옆에 있는 ‘죽도’, 그리고 ‘우산도’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독도’ 이 세 섬을 합해서 ‘울릉도’라고 한다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고종이 ①에서 ‘송죽도’라고

44) 『高宗實錄』 高宗 19年 4月 壬戌(7日) 條.

한 것은 송도와 죽도 두 섬을 가리켰다고 보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⁴⁵⁾



[지도 2] 『해동여지도』의 강원도 지도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관료들의 탁상머리에서 끝난 것이 아니란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동해에 세 섬이 존재하는 지도가 이미 그 이전에 제작된 것을 보면, 이 무렵에는 이와 같은 인식은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제시한 [지도 2]는 국립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해동여지도첩(海東輿地圖帖)』의 강원도 지도로, 19세기 전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⁴⁶⁾ 그리고 울릉도에 대한 설명에서 “암석이 많아 백성이 살지 않는다.”⁴⁷⁾라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도가 제작될 무렵에는 울릉도가 비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 지도에서 울릉도의 북쪽에 분명하게 죽도가 그려져 있고, 또 그 동쪽에 우산도가 그려져 있다. 따라서 울릉도가 개착되기 이전부터 동해에 세 섬이 있다는 명확한 인식이 조선 사회에 퍼져 있었다는 해석을 해도 무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 나오는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에서의 석도는 고종이 말한 우산도였고, 이것이 우산도였다는 것은 『해동여지도』의 강원도 지도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45) 김화경(2011, p. 291)

46) 이찬은 “제작연대는 함경도 도엽(圖葉)의 상부 좌측에 있는 ‘정종(正宗) 11년 치 장진(置長津), 순종(純宗) 22년 치 후주(置厚州)’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정조(正祖) 22년(1822년) 이후의 지도임이 분명하다고 보았다. 이찬(1991, pp. 392~393)

47) “多巖石民不居.”

고 하겠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그러면 왜 독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석도로 표현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것은 조선시대의 전통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감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이들 두 이름에 관한 서종학(徐鐘學)의 연구 성과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獨島』·『石島』의 지명 표기에 관한 연구」란 논문을 통해서, 국어학적인 처지에서 이들 두 지명의 관계를 해명하여,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石’과 ‘獨’은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차자(借字)로서, ‘石’은 ‘돌, 독’ (<돌> <독>)을 표기하는 데 사용된 훈(訓)차자이고, ‘獨’은 ‘독’을 표기하는 데 이용된 음차자이다. …… 중략 …… ‘石島’가 표기된 칙령은 고문서의 교서(敎書)에 해당되는 문서인데, 교서는 한문으로 기록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다. 따라서 ‘돌섬’, ‘독섬’ 을 표기하려면 이를 훈차(訓借)한 ‘石島’를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례였다. ‘獨島’가 기록된 심홍택의 보고서는 고문서의 첩정(牒呈)에 해당되는 문서인데, 첩정은 이두(吏讀)로 기록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었다. 따라서 ‘돌섬, 독섬’을 표기하려면 이를 음차(音借)하여 ‘獨島’라고 기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관례였던 것이다. 따라서 ‘獨島’와 ‘石島’는 동일한 지물(地物)을 가리키는 이표기(異表記)인 것이다.”⁴⁸⁾

이러한 서종학의 연구 성과를 수용한다면, ‘石’은 ‘돌, 독’의 훈차자이고 ‘獨’은 그것의 음차자이며, ‘獨島’라는 표기는 ‘石島’의 이두식 표기인데, 이런 이두식 표기는 조선 후기까지 사용된 첩정의 전통이었다는 것이다. 일본의 외무성은 이와 같은 한국어 표기의 관례를 알지 못한 채,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그런 무리한 주장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살펴본 사실들을 종합한다면,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에서 울도군이 관할하기로 한 ‘석도’가 독도라는 사실은 고종의 인식과 『해동여지도』에서의 강원도 지도, 그리고 서종학의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한제국이 칙령 제41호로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이었음을 공포한 것은 근대 국제법의 영토 선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본 논고는 앞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고등학교에서의 독도 교육의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필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교과서에서의 독도에 대한 기술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

48) 서종학(2008, p. 57)

본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을 거친, 명확한 사실을 기술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목적 아래서 수행된 연구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신라 때에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정벌함으로써, 독도가 한국의 고유 영토가 되었다고 하는 주장으로 일본을 설득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에는 독도에 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울릉도에서 독도가 가시거리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독도가 우산국 사람들의 생활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까지 우산국의 영토였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실제로 이런 인식은 한국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존재했었다는 것을 『인슈시청합기』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한·일 양국 사이에 존재했던 섬까지의 거리가 멀고 가까움에 따라, 그 섬의 소유를 결정하던 관습법에 의해서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독도의 고유 영토설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둘째 한국의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란 사실을 확약 받고 돌아온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것을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 남아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우산도’라고 부르던 독도에 ‘자산도(子山島)’란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 후에 자산도라는 이름을 붙인 지도가 제작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18세기에는 자산도라는 이름이 널리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였다. 그리고 『숙종실록』 보궐 정오편(補闕正誤編) 숙종 40년(1714년) 7월 신유(辛酉: 22일) 조에 실려 있는 기록, 곧 “울릉도의 동쪽에 섬들이 서로 마주 보이는데, (이것이) 왜의 경계에 접해 있다.”라는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당시에 독도가 명백하게 조선의 영토로 인식되고 있었다는 것을 교과서에 기술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 정부가 칙령 제41호로, 울릉도에 울도군을 설치하고 이 군에서 울릉 전도(鬱陵全島)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관할한다는 것을 공포하였다. 여기에서 석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오늘날의 독도를 가리킨다. 그런데도 일본 측은 이것이 독도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고종이 송도(松島)와 죽도, 우산도 이 세 섬을 울릉도로 통칭한다고 했다는 것과 실제로 이들 세 섬이 그려진 『해동여지도(海東輿地圖)』가 이미 존재했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석도가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면서 서종학(徐鐘學)의 연구를 수용하여, 독도(獨島)는 음차자(音借字)이고 석도(石島)는 훈차자(訓借字)이며, 이러한 이두식 표기가 조선 후기까지 사용되었던 첩정(牒呈)의 한 형태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추정이 사실이라는 것을 구명하였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남아 있는 세 가지 사실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을 중·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기술한다면,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일본 사람들에게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참 고 문 헌

肅宗實錄.

高宗實錄.

장한상. 鬱陵島事蹟.

교육과학기술부(2009a). **중학교 국사**. 서울: 두산.

교육과학기술부(2009b). **고등학교 국사**. 서울: 두산

교육과학기술부 홍보자료(2011. 3. 3.)

김광남 등(2008).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서울: 두산.

김한중 등(2009).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서울: 금성출판사.

김화경(2009). 섬의 소유를 둘러싼 한·일 관습에 관한 연구. **독도연구**, 7. 경산: 영남대 독도 연구소. 5-45.

김화경(2011). **독도의 역사**. 경산: 영남대출판부.

농상공부 수산국 편(1910). **한국수산지**, 2. 서울: 인쇄국.

법제처 역(1976). **춘관지**. 서울: 법제처. 이맹휴. 春官志.

서종학(2008). ‘獨島’·‘石島’의 지명 표기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139. 서울: 한국어문 교육연구회. 39-62.

송병기(1991). 독도 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9-50.

송병기 편(2004). **독도영유권자료선**. 춘천: 한림대출판부.

신용하 편저(2000). **독도 영유권자료의 탐구**, 3. 서울: 독도연구보전협회.

이민수 역(1983). **삼국유사**. 서울: 을유문화사. 일연. 三國遺事.

이병도 역(1983). **삼국사기**. 서울: 을유문화사. 김부식. 三國史記

이상태(2007). **사료가 증명하는 독도는 한국 땅**. 서울: 경세원.

이찬(1991). **한국의 고지도**. 서울: 범우사.

정영미 역(2006). **독도자료집(竹島考證)』Ⅱ**. 서울: 바른역사정립기획단. 北澤正誠. 竹島考證.

文部科學省(2008). **中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社會編**. 東京: 文部科學省.

文部科學省(2009). **高等學校學習指導要領解説社會編**. 東京: 文部科學省.

三田清人(2007). 鳥取縣立博物館所藏竹島(鬱陵島)・松島(竹島)關係資料. **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松江: 竹島問題研究會. 27-57.

市島謙吉 編(1906). **續續群書類從**, 9. 東京: 内外印刷.

外務省アジア大洋州局ア北東アジア課(2008). **竹島問題を理解するための10のポイント**. 東京: 外務省.

田川孝三(1989). 竹島領有に關する歴史的考察. **東洋文庫書報**, 20. 東京: 東洋文庫. 6-52.

- 佐々木茂(2007). 領土編入に關わる諸問題と資・史料, 『竹島問題に關わ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松江: 竹島問題研究會, 58-61.
- 池内敏(2007). 近代日本の西北境界, 『史林』, 90-1, 京都: 京都大學史學科, 123-146.
-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 東京: 古今書院.
- 樋野俊晴 脱草(2005). 元祿九丙子年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 獨島研究, 1, 慶山: 嶺南大獨島研究所, 251-265.
- 下條正男(1996). 竹島問題考, 『現代コリア』, 361, 東京: 日本朝鮮研究所, 54-73.
- 下條正男(2007). 最終報告にあたって―‘竹島の日’條例から二年, 『竹島問題に關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松江: 竹島問題研究會, 3-8.

· 논문접수 : 2011-05-01/ 수정본 접수 : 2011-06-12/ 게재승인 : 2011-06-21

ABSTRACT

A Suggestion to Establish Right Way to Teach Dokdo in Education

- focused on the middle-high school Dokdo description in Korean history textbook -

Hwa-kyong Kim

(Professor, Yeoungnam University, Chief Director of Dokdo Institute)

This paper aimed to establish a right ways for Dokdo education in middle-high school which could intensify the course of education. So this study defined the correct recognition of Dokdo description clearly and verified facts not only for Korean but also for Japanese who against us. The summary of the study is as follows.

First, the insistence of theoretical background for inherent Korean Dokdo sovereignty in the history by conquer of the Usan island by Yisabu during Sylla dynasty have no persuasion because there is no direct record in Samkuksaki or Samkukyusa about Dokdo. However, the fact that Dokdo was in the visible distance from Ulleungdo for the residence of the Usankuk people could be a good pint to insist the inherent territory as a ground because Dokdo was within the living space for the people.

Second, Korean history textbook for middle-high school described Ahn Yong-bok sailed to Japan and get the approval of Ulleungdo and Dokdo as Choseon(Korea) territory. But there is no material to prove this fact. So the author emphasized the naming process of Dokdo to 'Jasando(子山島)' which had been called as 'Usando' until Ahn Yong-bok who sailed to Japan and insisted Dokdo territory as Korean on the basis of materials in Japan and Korea. Also this study presumed Jasando name was prevalent to the public on the basis of drawing Jasando in the map in 18th century. We can find the record in Sukjong-silrok complementary edition(補闕正誤編) of King Sukjong 40(1714) July Shinyoo (辛酉: 22) describing, "The islands in the east of Ulleungdo faced each other, (they) reached to Japanese border.", which could be definite theoretical ground of Dokdo sovereignty for Koreans in the textbook to be described.

Third, Korean Imperial Ordinance #41 in October 27, 1900 declared that Uldo-gun was

set up in Ulleungdo and the gun administer the whole Ulleungdo, Jukdo(竹島: bamboo island), and Seokdo(石島: Stone island-Dokdo). Here the name of Seokdo definitely indicates present Dokdo. Despite of this historical fact, Japan still insist false assertion on Dokdo territory.

This study accurately indicated the proof of existing fact in the map Haedong-yeo-jido: Grand Map of East Country(海東輿地圖) which drawing three islands of Songdo(松島), Jukdo, and Usando as so called one Ulleungdo island. and explained Seokdo as Dokdo. Therefore, author accepted theoretical study by professor Suh Jong-hak(徐鐘學) who defined the name of Dokdo(獨島) as script of borrowing the sound(音借字) and Seokdo(石島) named after the meaning(訓借字), which had been accepted as one of naming method by Yidoo until late Choseon era as one of the forms of to assume the name of Dokdo.

If we clearly describe the above three facts to insist Dokdo as Korean territory in the middle-high school history textbook on the basis of the proof, more reasonable explanation would get the Japanese recognition on the historical record of Dokdo as Korean territory.

Key Words : Dokdo education, Jasando, Ahn Yong-bok, Yisaboo, Haedong-yeo-jido, Seokdo, inherent territory assertion.

